1.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써보자

4학년이 되면서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커져 최근 우울함을 겪고 있다. 오랜만에 연락한 지인의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이라는 인사말에 부끄러움이 들기도 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방학이라는 핑계로 쉬고 있는 나에게 위의 인사말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이 사회에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마음껏 쉴 수 있는 시기라는 생각과 어차피 시간이 더 지나면 하기 싫어도 취업 전선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마음에 현실도피를 하며 여유롭게 쉬고 있는 상황이다.

위에서 느낀 죄책감과 부끄러움과는 별개로,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내가 좋아하는 뮤지컬 공연을 보거나 마음껏 게임을 하거나 소설을 읽을 수도 있고, 가족들도 방학을 맞아 평소에는 같이 하기 힘들었던 활동들을 같이 하기도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친구들을 만나기는 어렵지만 우리 가족의 결속이 더 단단해져서 큰 아쉬움이 들지도 않는다.

어떤 글에서 이상적인 직장이란 하는 일의 90%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고 나머지 10%가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로 구성된다고 한 것을 읽었다. 휴식하고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앞의 말에 따르면 나에게 직장이란 90%의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곳, 즉 생계유지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나는 안정적인 가족 관계와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현상 유지 외에 앞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보면,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처럼 자연에서 자급자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게임을 만들어 보고, 작곡도 해보고, 가구도 만들어 보고, 필요한 어플이 있으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급자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욕구를 ‘현대인의 낭만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다. ‘나만의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 직접 해냈을 때의 성취감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건강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2. Logicsquare.com id 생성하기

chomyungha@gmail.com